丁丑年 새해 바람직한 황소像은…

李 愚 伯
〈천문대대장〉

과거에는 황소처럼 묵묵히 일만 하면 성공할 수 있었으나 오늘같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황소처럼 일만 하면 골병만 들뿐 성공하기란 어렵다. 황소의 해 丁丑年을 맞아 바람직한 「황소의 像」을 그려본다.

천문대에 몸담고 있는 필자로서는 '신(新)첨성대'라는 칼럼에 기고한다는 것이 흥미롭기도 하면서 은근히 신경도 쓰인다. 첨성대란 이름 그대로 별을 관측하는 곳이다. 앞에 붙은 '신'자를 합하면 새로운 첨성대이니 필시 오늘날 필자가 근무하는 천문대를 지칭하는 것이리라 생각되고, 다른 의미로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두루 조망해 보는 장(場)이 아닌가 생각된다. 먼저 예전의 첨성대와 新첨성대에서 별 볼일 있었던 별스런 이야기 부터 하기로 한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농업을 국가 경제산업의 근본으로 삼았다. 따라서 통치자는 백성들에게 시간과 계절의 변화를 정확히 알려주어 농사에 도움을 줌으로써 그의 권위와 상징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천문학은 왕이 하늘의 섭리(天變現象)를 정확히 알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학문이었으므로 "제왕의 학문(帝王之學)"이라 하여 매우 중요시 취급하였다. 반면에 新첨성대에서 별을 보는 별 볼일 있는 이유를 약간 거창하게 설명하면, 우주의 질서와 법칙을 이해하여 인류에게 미래에 대한 올바른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보다 멀리 떨어진 우주 속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 보기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은 경쟁적으로 거대한 첨단첨성대 설치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허블우주망원경처럼 아예 우주공간에 新첨성대를 설치하거나 직접 방문(탐사)을 하고 있다.

이러한 新첨성대의 활동은 자연과 우주를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인간의 사상이나 인류문명의 발달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원자가 에너지 준위에서 여기되듯이, 어떠한 계기에 의하여 갑자기 점프하면서 발전하는게 아닌가 생각된다. 더욱이 주기는 짧아지면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지동설, 천동설이라든가, 산업혁명, 전기의 발명 등에서 많은 예를 찾을 수 있다.

최근에는 정보화시대, 디지털시대라 하여 반도체의 발명으로 새로운 생활 패턴과 가치관, 윤리관이 형성되어 기존의 사회통념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주변 환경이 변하여 어제가 옛날이라 쌍둥이도 세대차이를 느끼고, 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바다 속에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정신을 차릴 수 없이 지낸다. 최근 모 연구소에서 발표한 정보화시대에 틀림없이 실패하는 우리들의 옛 덕목중 몇가지 믿거나 말거나 예를 들어보면, 말없이 묵묵히 일하면 틀림없이 망한단다. 과거에는 황소같은 일꾼이 성공할 수 있었으나, 정보화 사회에서는 황소처럼 일하면 골병만 들뿐 성과는 좀처럼 나지 않는단다. 정보화 사회에서의 미덕은 정확한 정보를 재빨리 입수하여 상황 판단을 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내핍, 절약밖에 모르면 반드시 실패한다. 물자가 부족하였던 시절에는 절약이 미덕이었지만, 이제는 물자, 에너지, 돈 등을 창조적으로 과감하게 활용하여 몇배, 몇십배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겠다는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면 망한다. 매사에 신중을 기하다보면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적응할 수 없으며,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가치관의 창과 방패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한다.

황소의 해 정축년 새 아침을 맞았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가치관이 불투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 자칫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 십상이다. 비록 거대한 新첨성대는 지을 수 없을지라도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오붓하고, 포근한 내 마음 속의 첨성대를 지어서 올 한해의 그림을 그려본다. 정보화시대에 바람직한 황소상은 어떠한 모습인가를.